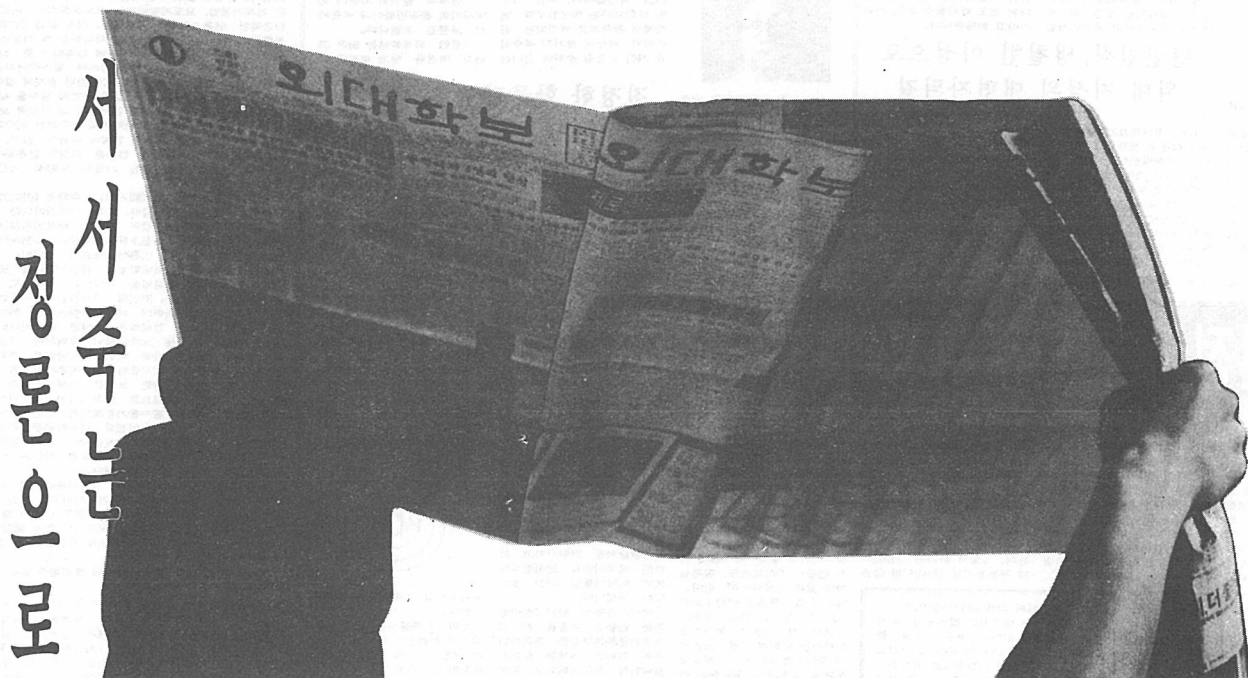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영
면집장	송훈

의대신문사 (등록번호-7128과965-7001)
 의대학보 (등록번호-7048과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아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이색의학연구소의대신문사 이국환



◇사진..윤덕주기자

창간 33주년 기념사

부정과 혼돈으로 얼룩져 한치 앞을 예측
키 힘든 허리잘린 반도의 땅에서, 오직 자유
언론과 정론직필만이 새벽을 고(告)하는 전
령의 사령으로 알고 그시보(始步)를 내민
은익해방군이 어엿23선사(恩賜)을 넘어서다

분단으로, 식민지로, 독재의 압제로 범법된 44년이 지난 오늘, 언론의 참가치는 장사(葬事) 치뤄졌고, 직필의 의지는 독재앞에서 한낱 곡필(曲筆)로 연연해왔음을 되새길때 참으로 안타까움에 폐부 깊은 곡(哭)을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해안(慧眼)이 본질을 꿰뚫지 못한 단안(短眼)의 안타까움이었으며, 우리의 의지가 감철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한탄은 오묘이요, 뒤뜰된 세상속에서 가로 쓰러진 활자를 바로 일으켜 세우지 못한 글쓰는 자의 자기비판의 과장이었을 뿐이다.

하여, 정론과 직필만이 글쓰는 자의 사명으로 알고 피와 살과 혼을 다해 걸어온 외대학보 33년.

그러나 작금 33년의 감격에 젖어 기뻐할

때는 진정 아니다. 그동안의 뼈저린 통한과
환희에 젖은 질곡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격전(激戰)을 맞을 마음가짐과 자세로 거듭
깨쳐 일어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땅 동토의 자주, 민주 그리고 조국통일
의 그날이 아직까지 도래치 못했음은 우리
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글쓰는 자의 안일과
침묵이었음을 자인하고 또다시 피로써 아로

죽창의 신념으로 살아

새기는 자기부정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소나무의 끝은 부정의 바람에 휘부러지
고야마는 사실을 목도해야하는 시대, 오직
갈대와 같은 유연함과 카멜레온과 같은 보
호색, 현학자(衞學者)의 곡학아세만이 판치
는 암흑의 시대, 그렇기에 정론과 적절은
강철같이 단련되어야 하고 이를 생명으로 하

는 글쓰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직결임이 하늘이 내린 천리(天理)라면 꼭꼭
는 독재자의 가림주구런만, 끝없는 자들
갈짐이 결국 죽음이란뿐 최소한 역사앞에
뒤통해아함이 우리의 천명(天命)인 것이다.
비록 하야리 혼다함속에서 음바름을 전지하기
란 그리 쉽지않지만 파학적 사유(思惟)와
냉철한 의지,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자기부
고와 혁신을 거듭하며, 난세를 헤쳐나갈 구
도자로 나서야함이 하늘을 사는 끝없는의미
의따름.사명이다.

서서 멍멍히 순교하는 죽음을, 하여 다시
더 큰 파고로 거듭태어나 독재와 부정에 맞
서는 소나무같은, 축창과같은 의지와 신념
을 다시금 다짐하며 굵고 강직한 생(生)을
갖으한다.

백번, 천번, 만번 강조해 지나침이 없는
자유언론이며, 정론직필이며, 외대 학보
여!

외대 학보

창간33주년 특집16면

- 1번 : 사해, 향간33년 기년사
- 2번 : 논변단-음운장식과 민주세력
의 교체
- 3번 : 보도기사
- 4번 : 학술-신식민지시대 한글일
문장평어사소고
- 5번 : 사해의 문헌정리공작에 불어나
는 5개 국어 제정
- 6번 : 특집1-제후 4, 3항정의 성
격정치를 위하여
- 7번 : 국경기고-왜에 10월혁명의 의
의와 한계
- 8번 : 특집2-회곡, 산자여따르라
- 9번 : 특집3-6월혁명주요 인물의
의견
- 10번 : 특집4-의대원장 33년의 발
자취
- 11번 : 해방2년-부흥운동종조본
- 12번 : 사해의 문헌정리공작에 불어나
는 5개 국어 제정
- 13번 : 특집1-제후4-3항정의 성격정
치를 위하여
- 14번 : 특집2-회곡-산자여따르라
- 15번 : 특집3-6월혁명주요 인물의
의견
- 16번 : 특집4-의대원장 33년의 발
자취

외대학보 창간 33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성대학교보사
중대신문사
인천대신문사
이대학보사
숙대신문보사
세종대학보사
서울여대학보사
서울산업대신문사
성심여대학보사
서강학보사
명대신문사
동대신문사
동덕여대학보사
대학주보사
단대신문사
광운대학보사
고대신문사
경대신문사
건대신문사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학문과 문화의 진보



◇박필수 총장

상상력이 흐르는 동안, 교수·학생들의 열성과 정진으로 우리 의대학부가 대학 수준의 정상적인 것은 의대의 명예와 전의대의 공적일 것입니다.

현실인식, 냉철한 이성으로 의대 지성의 대변자되길

저는 의대학부가 펼쳐는 정돈이 학문적 분위기에 일조하여 의대학부의 지성이 대변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의대학부의 지성이 대변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을 전제로 할 때, 학문성과 보충성의 조화는 일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대학의 모든 보충과제가 학문적 분위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충과제는 학문의 현실이나 시대의 요구와 보충되고 보완함으로써 보충과제가 학문의 신도자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창간33주년 기념축사

맞이함에 즈음하여, 먼저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학문의 현실이나 시대의 요구와 보충되고 보완함으로써 보충과제가 학문의 신도자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신문을 사회의 특약이라고 할 때, 신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동하는 역사의 기록

◇이숙경 이사장

가사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의대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의대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문탐구의 동반자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의대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의대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총선정국과 민주세력의 과제

I. 글을 시작하며

4·19의 국외원정 출국을 앞둔 지금의 정국은 파도처럼 들끓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2·25정변이후를 기화로 그들의 안목과 지평을 넓혀서 하고

히 구국하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민당의 민주헌정헌법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II. 국회의원 총선을 대하는 관점

다시로는 총선투쟁은 우리민중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중의 하나는 사실통합과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의 안정적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III. 글을 시작하며

4·19의 국외원정 출국을 앞둔 지금의 정국은 파도처럼 들끓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2·25정변이후를 기화로 그들의 안목과 지평을 넓혀서 하고

히 구국하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민당의 민주헌정헌법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의 안정적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의 안정적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III. 총선 투쟁의 구체적 침로

(1) 광우합설 진상 규명투쟁을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광우합설은 6·25로 한국민중이 겪은 최대의 비극이며 미국에 의한 식민지 파쇼통치의 잔악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는 단번에 투쟁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본보 창간 33주년을 맞으며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사설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사설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사설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의 안정적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사설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사설

본국과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33년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국을 통해 민주세력은, 국민적 합의, 권위와 청산의 해를 민주를 회유하고 한민당으로의 파벌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

한울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 - 韓 - 그룹

작은 뜻을 모아 큰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선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섬유·화학·기계·전자·건설·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성장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류 프로세스로 반도체를 생산, 반도체를 통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선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

